

## 權紀 1100년 역사재조명 편집위원회 개최

### 천년의 준비, 문중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다



권기 1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편집회의가 6월 24일 오전 11시 대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안동권씨 성(姓)을 득성한 이래 1100년의 문중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신라는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신라는 BC57년에 건국하여 936년에 멸망하기까지 992년을 유지했다.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합하면 역시 1000년이다.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474년 왕조를 유지했다. 조선은 1392년 개창하여 1910년 멸망했으나 518년간 지속되었던 왕조이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의 역

사를 합하면 역시 992년이 된다. 1000년인 것이다.

어떻게 이렇 수가 있는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1000년의 긴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안동권문은 앞 천년의 역사에서 뒤 천년의 역사에서도 늘 그 중심에 서 있었다. 1000년의 역사적 패턴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1000년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권기 1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역사적인 편집회의에는 권해옥 회장을 비롯해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오신 편집위원장, 권오훈 문헌편

찬위원장, 권영섭 화백, 권해조, 권혁재, 권오달, 권기탁 편집위원, 권인호 교수, 권건중 사무총장, 권태훈 총무국장, 권행완 편집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며, 1100년의 권기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과 소중한 사료를 소장하고 있으면 대중회에 제공해 주시면 참고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라고 말했다.

권영익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중보는 안동권문의 핵이다. 발전을 기억하는 것이 단합과 평화의 메시지가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100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중대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 심혈을 기울이는 장이 되길 바라고 또 주역이 되길 빌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각자 소개를 하며 상견례를 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權紀의 역사'라는 제목의 역사연대표를 제시하며 권기를 중심으로 문중사와 한국사를 비롯해 동아시아사는 물론 세계사까지 아울러서 도표로 작성하는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먼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권오신 편집위원장은 역사 자료를 모으는데 각 15개 파중회를 통해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간이 넉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은 사료가 실린 책자까지 가지고 왔다. 권인호 교수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건중 사무총장은 회의결과를 파중회 등에 알려 주고 조연을 받길 바란다

권오신 편집위원장은 역사 자료를 모으는데 각 15개 파중회를 통해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간이 넉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훈 문헌편찬위원장은 사료가 실린 책자까지 가지고 왔다. 권인호 교수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건중 사무총장은 회의결과를 파중회 등에 알려 주고 조연을 받길 바란다

것은 후손들이 읽어야 할 자료들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게 체계는 간략하게 병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넷째 작성 주제의 문제에 대해서 권영섭 화백은 편찬위원회인지 편집위원회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도는 굉장히 좋고 기본 구도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에 권해옥 회장은 1100년의 역사를 제대로 되돌아보는 기획이니 15개 파중회 회장에게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보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편집위원들은 편집위원을 뽑는 층으로 추가 위촉하는 문제, 칼럼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중보 크기의 문제, 한글만 쓰니 등 음이외어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글만 쓰지 말고 한자도 혼합해서 쓰는 문제, 만화나 소설을 연재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했다.



권오달 고문은 대중회에서 추진하는 권기 1100년 역사를 재조명하는 역사적인 '권기 천년사' 사업을 위해 사료 수집 비용 및 인쇄비 300만원을 대중회에 기증했다.

### 권종갑(權宗甲) 전 부산중친회장 고문 추대



안동권씨 검교공파 32세로서 1924년생이며 부산중친회 6,7,8대까지 회장을 지내면서 장학금 5천만원을 기증하여 현재까지 후계양성에 기반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부산청장년체육대회 시에도 거금 2천만원을 기증하여 권문발전에 크게 기여한 큰 어른이다.

### 7월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 <임원선임>

이사: 권송웅(대전), 권혁도(예천)  
중보편집위원: 권기탁(서울)

#### <부회장 회비>

권정일(태광상사 대표) 1,000,000  
권오섭(라이온스 총재) 1,000,000

#### <총무위원 회비>

권인탑(안동) 200,000  
권순채(서울) 200,000

#### <이사 회비>

권오순(영양) 300,000

#### <찬조금>

권영한(고문) 1,000,000

총: 3,7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 社告

### 총무국장을 모십니다

안동권씨 대중회에서는 애족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총무국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에 권문 발전에 기여할 뜻을 가진 공직자 출신 등 훌륭한 인재를 찾고 있으니 족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정 및 회계 관리업무 경력자
  - 전산업무 수행능력 가능한 자
  - 소방안전관리 2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지원기간: 2019.7.5.까지  
○ 지원서류: 이력서 1통(사진 첨부)  
○ 연락처(안동권씨 대중회): 전화번호: 02-2695-2483-4 FAX: 02-2695-2485  
○ 이메일: andongkwonmun@hanmail.net  
○ 주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안동권씨 대중회장

## 權紀 1100년의 역사 재조명 사업

대중회에서는 權紀 1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 3정승 6판서, 청백리 등과 안동권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권문의 위상을 드높인 현조들의 사료를 모아 '權紀 천년사'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각 파중회에서는 각 파의 현조들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편집회의: (1차)2019년 6월 24일 11시, 장소: 대중회 ● 사업기간: 2019년 7월 ~ 2020년 3월(9개월)말까지
- 사업담당: 편집국장 권행완
- 작성 예시

권기	단기	서기	문중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호/성명	파	관직명	주요 사건 및 공적	묘소			
1		930	권행 權幸	시 조 태사공	삼한벽삼상중대공 아부공신	안동권씨 득성(得姓)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산11번지	서경에 학교 창설		
6		935						신라향복(명망)		
7		936						고려통일, 후백제멸망		
21		950						요나라 건국		
29		958						광종 과거제도 실시		
31		960						백관의 공복 제정	송나라 건국	폴란드 왕국 건국
33		962								신성로마제국 성립

\* 표기시 한자 병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병기 가능합니다. 각 파중회에서는 문중사까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해옥